

인생의 소중한 경험



박 승 혁

- 수원 대평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2020년도 5급 공채 검찰사무직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0년 5급 공채 검찰사무직 합격자 박승혁입니다. 2019년 10월경 『考試界』에 게재된 합격수기를 찾아보면서 5급 공채시험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합격자로서 『考試界』에 합격수기를 남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사무직은 여타 직렬들에 비해 과목이 많이 다르므로 합격하신 지인을 통하거나 합격수기를 통해 교정학, 법의학과 같은 과목을 준비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5급 공채 공안직 합격자가 없었으므로 『考試界』 사이트를 뒤져 역대 검찰사무직 합격수기를 찾아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상 『考試界』에 게재된 합격수기가 저의 합격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므로 저의 합격수기 역시 이후에 검찰사무직을 준비하실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서술하겠습니다.

II. 시기별 수험공부의 방법

1. 진입계기

2019년도까지 약 3년 간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였고, 서술형 시험에서 안타까운 점수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수험기

간 동안 형사법을 공부하면서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서술해야 하는 5급 공채시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흥미가 있었으며, 2019년도 시험에서의 낙방이 5급 공채시험을 보라고 하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2019년도 10월 경 경찰간부시험이 끝나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5급 공채시험의 검찰사무직 수험을 시작하였습니다.

2. 2019년도 10월 ~ 2020년도 2월

『考試界』에서 지난 검찰사무직 합격자들의 수기를 구해서 보고 그를 바탕으로 1차시험까지의 학습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기가 있던 과목이 형법, 형사소송법 뿐이었기에 우선 PSAT을 꾸준히 하면서도 행정법과 교정학 기본강의도 수강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PSAT을 준비함과 동시에 행정법 1순환을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 후에 행정법 2순환과 헌법강의가 있는 기간에는 PSAT은 거의 하지 못하였고, 1월이 되고 나서 다시 PSAT을 시작함과 동시에 객관식 교정학, 형사정책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3. 2020년도 2월 ~ 8월

PSAT이 연기됨에 따라 PSAT만을 장기간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형사법을 점검하고, 교정학 기본서를 틈틈이 보면서 미약하게나마 2차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4월 중순 경부터는 다시 PSAT만을 준비하였고 1차시험 응시 후에는 2차시험 과목들에 대하여 답안작성을 시작했습니다. 1차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야 법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

였고 운 좋게 1차시험을 통과하여 8월 말에 2차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습니다.

Ⅲ. 과목별 수험공부의 방법

1. 제1차시험

(1) 헌법

대학 재학 시 헌법강의를 수강하였기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원가의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면서 헌법 수강시에는 헌법만에 집중하여 헌법으로 인해 PSAT을 불합격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급 공채시험 헌법의 경우 최근 경향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은 최대한 성의있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 PSAT

저는 PSAT 10개년 기출문제를 총 4번 정도 풀어보았고 언어논리, 상황판단에 대하여는 학원의 정규커리큘럼 없이 준비했으며, 자료해석만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간신히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바 공부법을 추천드릴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PSAT를 함에 있어서 피하실 점은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짧은 기간을 두고 반복하게 되면 기출문제에 대한 점수는 오르지언정 실력이 오르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준비기간이 짧다는 핑계로 다른 수험생 분들이 하시는 문제분석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그 때문에 계속 틀렸던 문제를 틀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정답을 외우지는 않았으나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 무의식적으로 눈에 익숙한 선지를 선택

하여 정답을 맞춰 마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PSAT시즌을 시작할 때와 시험 직전에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 사이의 기간에는 기출문제의 반복 없이 새로운 문제들을 통해 실력을 쌓으신다면 저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제2차시험

(1) 형 법(69점)

가. 교 재

이인규 캡슐, 오재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 이용배 신체계형법, 이인규 변시·사시 기출사례집, 이재철 형사특별법 핸드북,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강사모의고사, 최신판례집

나. 공부방법

2020년도 5급 공채시험 제1문에서 개괄적 고의인지 개괄적 과실인지 서술하는 것이 핵심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논점은 평상시에 자신만의 명확한 논리로 구별해놓지 않는다면 실전에서 실수하기 쉽기에 형법에서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사례연습과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관을 흠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이 고득점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사례에서의 서술은 행위자의 고의와 결과발생 등 구성요건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목차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례를 교수님들만큼 완벽하게 서술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본격적인 내용 서술 전 목차구성시간을 충분히 잡고 실수를 줄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법의 경우 시중에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추어 수강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교재의 사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핸드북의 경우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보면서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의 검토는 각 수험서별로 학설을 달리 취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수험서를 참고하여 저만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특정 학설을 취해야만 뒤에 서술할 논점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러한 학설을 선택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핸드북에 기술된 검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저자인 것처럼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수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논리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 시간을 들여 정리한 결과 암기할 양도 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암기의 경우 판례의 키워드를 나열하여 핸드북에 적어 놓았고, 사례집이나 최신판례집에서 중요하다 생각한 판례가 핸드북에 없는 경우 핸드북에 키워드를 옮겨 적어두었습니다. 그러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한 후 답안작성을 하면서 키워드를 다시 문장으로 풀어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형법공부에 있어서 이해, 암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문입니다. 저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조문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한자를 눈에 익히고 사기죄, 절도죄와 같이 항상 나오는 부분은 조문에 의지하지 않고 성립요건을 따로 외워서 서술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64.33점)

가. 교 재

김정철 형사소송법, 이창현 형사소송법(교

수저), 김영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사
례집, 변호사시험 강사 모의고사, 서브노트

나. 공부방법

형사소송 전반에 대한 흐름을 숙지한 후에
수사, 증거법에 있어서 암기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험 중에 법전을 단 한번
넘겨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암기한 대로 조
문까지 적시하였습니다.

제1문을 서술하면서 자백보강법칙을 깊게
다루는 실수를 하였으나 다시 논점에 맞게 서
술하여 점수에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
나 2차성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초시였기 때문
에 채점을 받아본 전력이 없어 큰 실수라고 생
각하여 형소법으로 인해 불합격할 수도 있겠
다는 생각이 머리를 땀들었습니다. 형사소송
법의 경우 논점들이 외관상 비슷하지만 포섭
에서 조금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평소에 구분
하여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특히 이번에도 제2문에서 위장출석인지
위장자수인지 저 또한 실수할 뻔 했다는 점에
서 최신 기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탄
탄히 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공부의 중심은 서브노트였습니
다. 시중의 핸드북을 구해서 볼 수도 있었으
나 행정고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작성해둔
서브노트가 있어 고시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책들에 나오는 논점을 추가적으로 정리했습
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시중 강의에서 관례
의 두문자를 정리해준 것이 많기 때문에 두문
자가 있는 리딩관례는 전체문장을 외우고 그
동안 등한시했던 공소제기, 공판, 특별절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조문은 많이 공부해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사법과 증거
법 부분에서 빈출되는 조문위주로 암기하
는 것이 시험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경 수사권조정
으로 인해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
가법령센터에 형사소송법을 찾아놓고 페이지
상단의 신·구법 비교를 요긴하게 사용하였습
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강사들의 추록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보면서 체계변화를
숙지하신 뒤에 학원가의 자료는 보고 내가 이
해한바 대로라는 확신만 가져가는 용도로 사
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법령개정
을 확인하게 되면 수험생들이 가지는 불안감
도 줄이고 앞으로의 출제방향에 대해서도 예
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제의 경우에도 제
312조 제1항과 제2항의 부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리 법령변화를 이해
하신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부담
을 덜 느끼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례집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
면 명확히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법학교수님들이
인터넷에 게재한 자료나 교수저를 참고하여
서브노트에 비는 논점이 없게 채워넣고 반복
하여 보았습니다.

(3) 행정법(54.33점)

가. 교 재

행정법 워크북, 핸드북, 행시·변시·사시 사
례문제집, 강사모의고사

나. 공부방법

초시였기 때문에 학원강의를 충실히 따라갔
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동안 형

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여 어느 정도 리갈 마인드가 생겨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리갈 마인드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민법을 대강 이해하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게 되니 사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과 기관 간 또는 기관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행정법 이행의 주체 간 관계라는 점에서 유사점도 있었고, 공적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점도 있었기에 타 법률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제가 법률 공부 베이스 없이 행정법공부를 시작한 사람보다 조금은 유리했던 것이 리갈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였던 ‘하자의 승계’의 경우 하자승계를 실수로 놓칠 수도 있겠지만, 승계를 놓친 것은 수험생이 평소에 사례를 마주하면서 하자를 단계적으로 나누는 등 각자의 문제해결 메커니즘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수험생이 평소 사례연습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아 채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목차구성 연습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관련법령이 많고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안을 포섭하면서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동안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모범답안을 보면서 여러 행정법 교수님들의 서술방식을 닮아가려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례집에서의 답안이나 강사 답안은 결점 없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나, 실제 수험생이 작성한 모범답안은 실수를 하면서도 강조할 점에서는 탄탄하게 내용을 구성하는 등 사고체계를 닮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범답

안을 통해 사례작성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나머지는 핸드북을 충실히 암기하여 준비하였습니다.

(4) 교정학(63.33점)

가. 교재

7급 객관식 교정학 기본서, 이운호 저 교정학, 교정본부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논문사이트를 통해 찾은 형사정책 관련 논문,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저 형사정책, 배중대 저 형사정책

나. 공부방법

5급 공채시험의 교정학에는 학원가에서 말하는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적으로는 2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정학의 경우 교정이론과 역사, 형집행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형집행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형사정책의 경우 범죄학이론에 대한 정리와 소년법에 대한 준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정학에 대한 족보를 구할 길이 없어 스스로의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족보를 스스로 만듦으로써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족보를 구하지 못하셨다 하여 진입을 망설이시거나 불안감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서브노트구성은 행시 기출문제와 그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한 답안, 교정관계법령을 순서대로 하여 인쇄 후 복사집에서 스프링하였습니다. 교정학의 경우 기출문제가 2019년도까지는 형집행법의 적용 및 최신판례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형사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여럿 나와 수험생을 당황시켰습니다.

여타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저도 형사정책의 비중을 줄여 공부하였으나, 형사정책이 버릴 정도의 과목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 범죄학이론에 대하여는 객관식 기본서와 교수저를 참고하여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교정학에서의 형사정책은 낙인이론과 같은 큰 부분에서 간간히 나왔으나, 2020년도 기출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학자가 대충 어느 내용의 이론을 제시하였는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 서브노트, 논문의 교정학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40:2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각자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을 캐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정학, 형사정책 교수저의 경우 서점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여러 책을 구하시거나 한 권씩 구해서 보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책도 구매하시는 것이 수험의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식 교정학 기본서를 이해를 위한 회독용으로 활용하였고 교수저는 논문과 함께 서브노트에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발췌독 하였습니다. 서브노트가 완성된 후에는 객관식기본서와 서브노트를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회독하였고 기상 직후, 식사 후 휴식시간, 취침 직전에는 교정 관련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본부의 교정연구는 매달 교정학회의 교정연구 중에서 선정한 것이기에 유권기관이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올라

가며, 기출문제를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다시 관련 논점이 출제된다면 언제라도 언급할 수 있어야 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볼 때에 전체 내용을 읽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앞에 요약된 부분과 답안작성하면서 참고해야할 목차들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한 내용을 정리한 서브노트에 기술하지 않은 논문들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해외의 경우 동일 사안에서 몇 개월의 복무기간을 인정하는지와 같이 시의성 있는 주제는 시험 직전에 키워드 위주로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어 시간이 날 때마나 눈으로 익히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5) 법의학(29점)

가. 교재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공저 법의학

나. 공부방법

저는 『考試界』에 게재된 검찰사무직 합격 수기를 보고 모두 법의학을 선택하였고, 하나 같이 법의학이 공부할 것이 적다고 서술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법의학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의학 또한 강의지원이 없기 때문에 행시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잡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법의학을 치는 시험이며 5급 공채 답안지를 두고 작성하여야 하기에 의사 국가시험과도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법의학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결과적

으로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준비해야 하기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의학 교과서는 여러 의학용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주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에는 목차 위주로 분량을 나누어 세부 내용의 이해와 상관없이 전반적 체계부터 대략적으로 이해해 나갔고, 내인성질환, 외인성질환, 온도이상 등과 같이 대범주를 숙지한 후에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나누어 세부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질식, 자상과 같은 부분은 매년 또는 격년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내용까지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의학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후 시간 추정에 대한 헨스게 표의 해석방법이 제가 본 교과서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튜브에 외국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통해 이 부분을 익히게 되었고, 그 밖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구글에서의 검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2. 제3차시험(면접시험)

2차시험 5과목에 있어서 통으로 버린 소목차가 없었기에 합격에 대해 살짝 기대도 했으나, 초시였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친 것인지 면과락 정도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2차시험 합격문자를 받고 아주 잠깐 동안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였으나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2차시험 성적을 알 수 없기에 2차시험에서 커

트라인으로 통과하였다면 면접에서 전력을 다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고자 우선 학원 면접 대비반을 등록하였으나, 소수 직렬이 저 혼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행정 직렬과 재정직렬 합격자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학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차시험 과목들은 적어도 기본서가 존재하였기에 개개인이 독학으로 준비가 가능하였으나 면접에서 검찰사무직의 경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몰랐기에 공안 직렬 지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5급 공채 면접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집단토의가 없었기에 학원 모의면접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으며, 학원 및 학원에서 결성한 면접스터디 활동 외 시간에는 법무부, 검찰청 공식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에 게시된 부처 소식, 정책 등을 정리하여 제가 지원한 부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전에서는 검찰 관련 이슈나 전문성과 관련한 질문은 극히 드물었고, 타 직렬과 비슷한 질문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련의 5급 공채 일정을 모두 겪어본 결과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면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개인 휴식시간은 2차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적었으며, 심리적 압박감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정도였기에 감히 검찰사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면접에서 법학이나 법무부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으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접에서의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에 지식은 얇고 넓게 쌓으시
 되 면접 태도 또한 신경쓰셔서 적어도 미흡 등
 급을 받아 낙방하는 사태를 방지하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IV. 나가며

제가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할 때와 비교하여
 5급 공채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하루하루가 너
 무나도 행복했었다는 점에서, 개개인이 수험
 과목에 느끼는 흥미 정도에 따라 본인에게 적
 합한 시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택한 직렬을 합격할 때 까지 도전한다는 마
 음가짐도 훌륭하지만 도전이라는 가치를 고
 려하여 직렬을 변경하여 수험을 치르는 것 또
 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고시생이 되기로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셨
 다면 공부한 내용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믿는 것도 수험생활의 막막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경찰간
 부의 형사소송법은 수사, 증거법의 범위 내
 에서 출제되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기본서의 문
 장 하나하나 똑같이 서술하기 위해 암기하기

가 너무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 그 당시에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서적을 보며 당장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보다 스스로의 공
 금증을 해소하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직렬을 바꾼 후에는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합
 격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었던 과정이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측면에서는 각자 성향이 다르므
 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에는, 각자가 스스
 로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수험기간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시
 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체력이 증
 진되면 공부의 효율성도 증가되는 것을 경험
 한 바 있고 시험에서의 합격은 상대적으로 단
 기목표겠지만 건강한 삶은 인생의 목표라는
 점에서 수험기간 동안 운동습관을 기르시는
 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저의 장황한 글은 절대적인 합격의 비기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합격수기가 『考試
 界』에 실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 마치겠
 습니다.